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경향분석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페미니즘 성향이 보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
2. 페미니즘 성향이 보이는 미국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3.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의 비교분석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태희* · 윤갑용

초 록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된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기까지에는 그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남성이 주도 해왔기 때문에 여성권리의 주장과 실현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영상미디어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미디어의 대표적인 장르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경향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적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을 분석하였다. 두 애니메이션에는 마녀로써 객체화 된 여성이 주체적인 여성을 만나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캐릭터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체적이며 자아 성취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타날 페미니즘의 변화상 역시 예측 가능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가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다음번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 페미니즘, 겨울왕국, 소녀혁명 우테나

I. 서론

1. 연구 목적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된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기 까지에는 그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남성이 주도 해왔기 때문에 여성권리의 주장과 실현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인 여성해방 운동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부분 여성의 권리를 되찾았으며,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남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형성했다.¹⁾ 이러한 변화된 사회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미디어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마치 물컵에 물이 담겨있듯이 미디어라는 컵 속에 물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스 미디어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것은 과거 여성잡지에서 나타난 왜곡된 여성상이 초기 페미니즘의 열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Tuchman, 1979:530) 잘 알 수 있다.²⁾

미디어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로써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메시지를 잘 전달 할 수 있으며 시각과 청각까지 함께 어우러진 매체라면 수용하기 좀 더 용이할 것이다. 시청각 매체 중 영상미디어에 속해있는 애니메이션 장르는 다른 영상 미디어 중에서 수용하기가 용이한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수용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어렸을

* 이 논문은 2016년도 청주대학교 연구장학 지원에 의한 것임

- 1) 서인경, <사회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여성원리 강화현상 분석을 위한 성별 감성어휘 분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2) 김선남·정현욱 지음, 「섹스 젠더 미디어」, 범우사, 1999년, p.218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애니메이션을 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대의 경향을 반영하는 영상미디어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속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애니메이션 속 여성이자 수동적 캐릭터의 모습과 수동적 캐릭터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 발전하였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일본 애니메이션과 미국 애니메이션의 작품을 각 한편씩 선정하여 포스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페미니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냈으며 사회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화 발전하였다. 19세기의 초기 페미니즘의 물결은 여성의 참정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 주장에서 시작되었고 2차 페미니즘 물결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페미니즘으로 지칭되는데, 이때의 페미니즘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백인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페미니즘은 유색인종여성과 제 3세계 페미니즘, 그리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의 결과로, 페미니즘이 ‘평등’에서 ‘차이’로 강조의 순위를 바꾸었으며 이는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변혁을 꾀하기 보다는 여성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권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권장 한다.¹⁾ 포스트페미니즘에 붙여진 ‘포스트’의 의미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어느 한 면에서 이를 페미니즘의 종언으로 보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변화와 변형의 과정’으로 중시하는 앤 브룩스의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의 책 내용과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일본의 페미니즘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미국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개인적으로 자아성취와 욕망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포스트 페

1) 이형식, 「포스트페미니즘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몸 대상에서 주체로」, 문화과영상, 2012, pp.569 - 594.

미니즘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도록 한다. 이 두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의 성격과 복식을 분석함에 있어 이전 페미니즘과 함께 포스트페미니즘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가부장제가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복식에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페미니즘적 경향을 보이는 주체적으로 자아성취와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캐릭터와 남성지배에 의해 억압되어 본인의 의지가 없거나 또는 억눌려져 있는 객체적 캐릭터 간의 관계를 위주로 페미니즘 경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II. 본론

1. 페미니즘 성향이 보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

일본애니메이션 장르 중 어린이를 타겟으로 했지만 남자어린이를 주된 타겟으로 했던 로봇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생겨난 장르인 마법소녀물은 여자 어린이를 타겟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마법소녀물인 <마법소녀 밍키>를 보면 일상적인 일을 해결하는 소소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밍키가 간호사로는 변신할 수 있지만 의사로는 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데올로기에 막힌 여성의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법소녀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소녀들을 변신시키게 되는 데 90년 대 방영하게 된 <달의 요정 세일러문>에서는 남성들의 전유물인 격렬하게 전투하는 싸우는 마법소녀물을 볼 수 있으며 <달의 요정 세일러문> 이후 제작된 <소녀혁명 우테나>에서는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페미니즘적 경향이 나타나있다.

<소녀혁명 우테나>는 제 2회 애니메이션 고베 작품상²⁾ 수상작으로서 90년대 후반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변혁을 주도했던 걸작이

2) 고베 시와 애니메이션 고베 실행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애니메이션 시상식으로 TV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는 ‘소녀혁명 우테나’가 수상한 제 2회 애니메이션 고베 작품상에는 극장판으로는 ‘모노노케히메’ 패키지 물로는 ‘신기동전기 건담W Endless Waltz’가 있다.

다.³⁾ <소녀혁명 우테나>의 TV시리즈 방영 후 극장판 <소녀혁명 우테나 Adolescence 목시록>이 상영되었지만 TV시리즈와 극장판의 설정이 다른 면이 있고 극장판에 비해 TV시리즈가 좀 더 페미니즘적 경향이 잘 나타나있다고 판단되어 TV시리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총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소녀혁명 우테나>는 오오토리 학원을 배경으로 학생회로 이루어진 듀얼리스트들이 세상 끝의 힘(영원)을 얻기 위해 장미의 신부인 안시를 놓고 결투를 벌인다.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남자교복을 입고 남자들과 같이 운동을 하며 여자들의 응원을 받는 우테나는 결투에서 이긴 승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안시를 ‘소녀혁명’ 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권력 아래 의지가 없는 객체화된 안시를 전복시켜 주체가 되도록 노력 하려는 것이다. 승자가 된 우테나는 안시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장미의 신부인 안시는 세계의 소녀들을 구해야 하는 왕자를 봉인하며 마녀라 불리게 된다. 사실 안시가 불쌍한 오빠인 왕자를 구하고자 봉인 하였지만 왕자였던 아키오는 세계의 끝이 되어 그 힘을 다시 얻고자 세상의 끝을 미끼로 결투를 진행시켰다. 우테나의 혁명은 실패로 우테나는 아키오의 세계 속에서 없어지게 된다.

1) <소녀혁명 우테나>의 페미니즘 경향

(1)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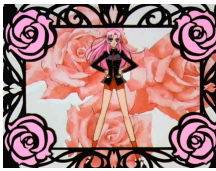


그림 1. 텐쥬 우테나



아리스가와 유리



히메미야 안시

3)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어 : 소녀혁명 우테나, 2016년 6월 23일.

① 텐조 우테나

교복이 정해져있는 오오토리학원에서 우테나는 치마를 입고 있는 다른 여학생들과는 달리 바지 교복을 입는다. 비록 우테나는 남자처럼 보이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바지를 입는 것으로 보이지만⁴⁾ 애니메이션 내의 다른 캐릭터를 통해 우테나는 남자의 옷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우테나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남학생들과 농구 등 운동을 하며 활기찬 모습에 여학생들의 선망을 받는 모습 또한 보인다. 그러나 남자와 같은 복장을 갖춘 반면에 분홍색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옷에서도 붉은 색 계열이 들어감과 동시에 뚜렷하게 보이는 머리카락을 분홍색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에서 여자아이는 분홍색 장미 꽃송이 안에, 남자아이는 푸른 양배추 속에 내려놓는 다는 이야기가 있듯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홍색을 여성의 상징 색으로 사용⁵⁾하는 것으로 우테나는 완전한 남자가 아닌 여성의 주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자의 모습을 빗대 당시에 허락되지 않는 주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테나의 모습을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렸을 때 왕자에게 구해진 후 왕자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우테나는 장미의 신부인 안시를 혁명시키려하는 존재이다. 여성 듀얼리스트인 아리스가와 주리는 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테나의 모습을 비판하며 우테나의 모습이 좋아하는 남자를 흉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에게 어울리는 진정한 자격이 있음을 말하며 우테나의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는 데 이는 우테나가 남자들의 신부(장미의 신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기적의 힘을 믿지 않는 다고 말하는 주리는 같은 성별을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현재에 순응하기 때문에 듀얼리스트와 결투를 하며 장미의 신부를 데리고 있는 우테나를 좋게 여기지 않지만 우테나는 굴하지 않고 주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여 자

4) 성의 우화로써의 우테나 by 무라세 히로미, 번역 sharkman
<http://egloos.zum.com/yamoo/v/808431>, 2016년 6월 23일

5) 박미성, 분홍색의 상징적 이미지 -인도의 여 자경단 ‘굴라비갱’ 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Vol.22 No.4, 2008, pp.11~19.

신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의 모습이 흉내 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줌으로써 주리는 우테나로 하여금 기적을 믿어보기로 한다. 우테나의 우아함이라 말하는 주체성은 남성의 주체성을 따라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주체에 대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테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자신을 구해준 왕자가 학생회장인 토가(듀얼리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미의 신부를 놓고 싸우는 결투에서 마음이 약해지며 우테나는 지향하는 모습과 불변의 모습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② 히메미야 안시



그림 2. 히메미야 안시

갈색 피부에 이마 중앙에 ‘빈디’ 를 붙인 안시는, 외모만 봤을 때 힌디 여성을 연상케 한다. 명예살인, 집단강간 등 여성혐오가 극심한 아랍권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⁶⁾ 건지 가부장제에 눌려있는 아랍권과 마찬가지로 안시는 자신의 오빠에게 억압당하고 있다. 장미의 신부로서 결투 때 신부라는 이름에 맞게 드레스를 입는 안시는 일반적인 신부의 색인 하얀 드레스가 아닌 붉은 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 어딘가 비틀려진 모습으로 비춰진다.

듀얼리스트와 함께 근본적으로 장미의 신부인 안시를 억압하는 존재로서 오빠인 아키오에게 종속되어있을 때는 긴 머리를 틀어 올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우테나의 혁명이 실패한 후 장미의 신부를 재개하려는 아키오의 아래에서 나올 때 안경을 벗고, 아키오의 세계이자 관(棺)인 오오토리 학원에서 나올 때에는 울

6) 구보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seenai88/220722228409>, 검색어 : 소녀혁명 우테나, 2016년 6월 23일

리고 있던 머리를 풀고 나감으로써 해방의 의미를 보여준다.

결투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와 같은 존재인 안시는 마치 인형과도 같이 자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 모습은 학생회의 듀얼리스트들 중 어느 누가 승자가 되어도 승자의 말에 거부감 없이 승자의 말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형과 같은 안시는 속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키오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묘한 말과 행동으로 학생회인 듀얼리스트들의 소망을 떠올리게 하여 디오스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결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아키오가 지시한 안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 안시의 행동이 본인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키오 편과 목시록 편으로 가면 자신의 오빠인 아키오가 우테나와 가까워지고 우테나 또한 아키오와 연심의 감정으로 가까워질 때 미묘한 말과 행동을 하며 그 둘이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 안시의 본심이 드러난다. 안시는 디오스의 동생이며 왕자인 디오스가 세계의 모든 소녀를 공주로서 구할 때 구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디오스의 힘이 봉인된 것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데 마녀가 디오스의 힘을 빼앗기 위해 성으로 불러 디오스를 가두었다는 이야기와 디오스의 동생이 공주들을 구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힘들어하는 디오스를 사랑하여 디오스를 봉인하고 자신이 사람들의 증오를 맞는 다는 이야기이다. 후자의 내용으로 안시를 보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우테나를 경계하며 미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감추고 있던 안시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안시는 이 때 행동은 장미의 신부라는 역할에 묶여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은 모습으로 완전한 해방이라 보기 어렵다.

우테나는 듀얼리스트들의 결투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투에서 이겨 장미의 신부인 안시와 약혼했다.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우테나의 눈에는 자신이 안시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을 때 안시는 우테나가 원하는 대로 친구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 모습은 앞서 듀얼리스트의 승자의 말대로 순종 하는 모습이지만 우테나가 원하는 것은 듀얼리스트의 승자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일대

일의 동등한 관계의 친구였다. 우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시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닫혀있다고 생각했던 안시의 마음은 마지막 안시가 우테나를 배신하고 아키오를 위해 수 백 만개의 검에 꽂혔을 때에도 우테나는 안시를 구하려 했고 우테나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에 안시는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후 오빠인 아키오의 말을 어기고 우테나를 만나러 가는 안시의 모습을 주체적 모습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안시의 변화를 완전한 자율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안시는 분기점 이후로 부터의 자율이며 그 분기점은 우테나와 연결되어 있는 유대라고 볼 수 있다.

(2) 오프닝 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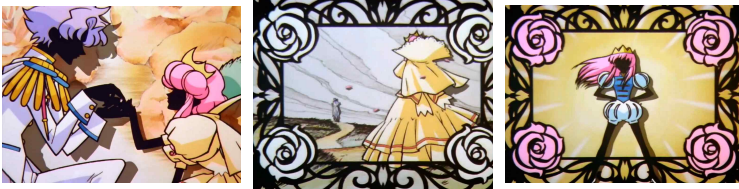


그림 3. 왕자님과 만난 공주님, 왕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공주님

“그것은 옛날 옛날이야기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니를 여위어 깊은 슬픔에 잠긴 어린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주님 앞에 백마를 탄 여행 중인 왕자님이 나타났습니다. 늙름한 모습, 상냥한 미소, 왕자님은 공주님을 장미의 향기로 감싸서 눈물을 없애 주었습니다.

단지 혼자서 깊은 슬픔을 견디는 작은 그대여 그 강인함, 우아함을 어른이 되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요. 오늘의 추억으로 이것을... 우리들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 반지가 너를 나에게 인도해 주겠지.

왕자님이 주신 반지는 역시 약혼반지였을까요...

그건 좋은데 공주님은 왕자님을 동경한 나머지 자기도 왕자님이 될 결의를 하고만 것입니다. 헌데 정말로 그걸로 팬찮은 걸까요?” 7)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멘트로 글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이 <소녀혁명 우테나>의 오프닝 멘트, 프롤로그 또한 애니메이션의 서사진행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은 공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자님과 만난 공주님, 왕자님은 공주님에게 훗날을 약속하고 떠난다. 여기까지는 어느 동화를 보더라도 나오는 공주님과 왕자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왕자님은 다시 공주님을 찾아와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라는 결말을 맺는 것이 일반적 공주라는 프레임에 갇힌 여성이라면 훗날을 약속한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프닝 멘트에서 말하는 공주님은 일반적인 공주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본인이 왕자가 되고자 결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경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동경하는 대상과 같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다리는 공주님이 아닌 ‘왕자님이 되고 싶다’ 라는 것 자체로 공주님은 변화하며 객체상태에서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오프닝의 공주님인 우테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서사를 진행한다. 우테나의 주체적인 모습은 처음부터 있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의 계기로 인하여 변화됨을 알 수 있다.

2. 페미니즘 성향이 보이는 미국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산업에서 가장 몸집이 큰 디즈니의 영향력은 미국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고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국내 상영애니메이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흥행작이며 기존의 디즈니 공주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결말인 ‘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happily ever after)’ 라는 것부터 바꾸었다. 디즈니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 Chief Creative Officer)인 존 라세터는 <겨울왕국>을

7) 소녀혁명 우테나, <http://www.siautena.pe.kr/story.html>

안티 프린세스 무비(Anti-princess movie)라고 칭하기도 했다.⁸⁾

깊은 피오르드⁹⁾ 안에 있는 아렌델 왕국의 공주인 엘사는 남들과는 달리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저주가 되기도 하였다. 사고로 여동생인 안나가 다친 후 엘사는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가장 친한 안나와 더불어 주위와 단절된 채 지내게 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여왕에 즉위하는 엘사는 대관식 날만 성문을 열고 단으려 했으나 엘사의 능력이 드러나며 엘사는 북쪽 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살려한다. 그러나 엘사가 떠나며 여름이었던 아렌델이 눈으로 얼게 되며 안나는 엘사를 찾으러 산을 오르게 된다. 엘사를 찾아 안나는 엘사와 대화하려 하지만 엘사의 거부와 함께 엘사의 마법의 힘을 맞은 안나는 트롤을 찾아가게 된다. 마법의 힘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는 트롤의 말을 듣고 안나는 결혼을 약속한 한스를 찾으러 간다. 하지만 한스는 권력 때문에 안나에게 다가간 것뿐이었다. 안나는 또 다른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인 크리스토프를 만나러 가는 도중 엘사를 죽이려는 한스를 본 후 엘사 대신 칼을 막고 얼어붙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안나는 녹게 되며 엘사는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아렌델에 여름이 찾아온다.

1) <겨울왕국>의 페미니즘 경향

(1) 캐릭터

① 엘사

엘사는 남들과는 다른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마법의 힘으로 자신의 여동생인 안나가 다치게 된 후 마법의 힘¹⁰⁾을 억누

8) 이민경, 「트렌스 미디어 관점에서 본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브랜딩 전략 -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9) 피오르(노르웨이어: fjord) 또는 협만(峽灣)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을 말한다. 옛날 빙하로 말미암아 생긴 U자 모양의 골짜기에 바닷물이 침입한 것이다.

10) XIONG LISI,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페미니즘의 변천 연구」, 동국대학교 영상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엘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힘

르고 자신을 가두는 데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 안나가 사고를 당한 후 찾아간 트롤은 이 힘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며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충고한다. 충고를 들은 아버지는 엘사가 이 힘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보다는 엘사의 모든 관계를 단절 시킨 채 억압하며 힘을 숨기라고만 말한다. 안나가 사고를 당한 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엘사는 혼자서 힘을 두려워하며 억눌렀다. 그 후 성문이 열리며 부르는 노래에서 ‘착한 소녀’가 되어야 한다는 엘사의 말은 누구에게 ‘착한 소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아버지에게인지 혹은 엘사 본인에게인지. 그러나 명백히 엘사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아버지에게 ‘착한 소녀’가 되어야 하며, 엘사는 남성인 아버지에 의해 본인의 성향을 감추고 억누르게 되었다. 이는 주체적으로 나아가려는 엘사를 막은 것이 아버지임을 알 수 있으며, 포스트페미니즘으로 보는 자아실현과 욕망을 단절하기 때문에 가부장제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4. 엘사의 변신

쪽 산을 오르며 부른 ‘Let it Go’와 함께 변하는 엘사의 외모에서 관객은 엘사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억압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엘사에게 계속해서 말하며 상기시켜왔던 숨기며 느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착한 소녀가 될 수 없다는 엘사의 말은 억눌려왔던 마음을 드러낸다. 온 몸을 감싼 옷에서 몸매의 굴곡을 드러내는 옷으로 바뀐 엘사의 의상과 더불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들은 자신을 가두고 억압하던 행위에서 벗어난 현대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때 엘사의 주체적 행동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데 그녀의

은 여성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버지가 마법의 힘을 감추기 위해 준 장갑을 내던지고 올린 머리를 내리며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다.

② 안나



그림 5. 안나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안나는 쾌활하며 일반적인 공주의 틀을 깨는 행동들을 보여준다. 잠에서 일어나는 안나의 모습은 잔뜩 흥클어져 뒤죽박죽인 머리카락 상태와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자고 있는 등의 모습은 고전적인 공주의 모습에서 떠올릴 수 없는 모습이다. 안나의 이런 모습들은 공주로서 접하기 어려움보다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또한 안나의 행동은 작은 동작이 아닌 주로 큰 동작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해 보인다. 안나를 주체적 캐릭터로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 데 안나는 쾌활한 소녀답게 성 밖의 자유롭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흥분하는 데 특히 성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과 만난 안나는 본인이 원하는 것에 주저 없이 나아간다. 대관식 날 밤 파티에서 만나 이야기한 한스를 데리고 가 엘사에게 결혼한다고 선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이 모습을 통해 관객은 안나가 사랑을 향해 진취적으로 성취해나가는 여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작에서 한스에게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안나를 완전한 주체적 캐릭터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엘사와 문을 열어 두었으면 하는 본인간의 갈등에서 안나는 결혼으로 남성인 한스에게 의존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사가 눈이 내리는 아렌델을 뒤로 한 채 북쪽 산으로 올라갈 때 안나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한스에게 엘사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엘사를 데리러 가는 모습에서 남성

의존의 모습이 아닌 주체적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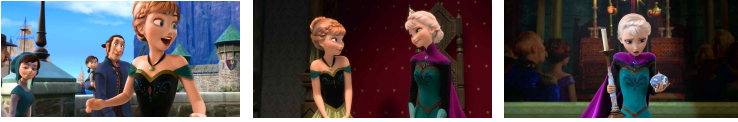


그림 6. 안나와 엘사

지금까지 <겨울왕국>의 주요 캐릭터이자 자매인 엘사와 안나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은 자매이기 때문에 외모는 매우 비슷하지만 둘의 성향과 표정 및 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쉽게 비교가 되는 장면으로는 대관식 날, 성문이 열리는 장면이다. 성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안나는 학수고대하였으며 기대감과 흥분한 모습으로 즐거워했고 엘사는 성문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당일 날에도 대관식 중에 장갑을 벗는 잠깐 사이에도 마법의 힘이 드러날까 불안해하며 걱정했다. <그림 6>의 가운데 그림은 대관식 저녁에서의 안나와 엘사의 모습이다. 이 이미지를 통해 둘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여름의 아렌델 임에도 불구하고 엘사는 목부터 손까지 온 몸을 감싸고 있으며 반대로 안나는 계절에 맞게 어깨와 팔을 드러낸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엘사와 안나의 의상에서는 안나는 성인의 의상과 같이 반팔을, 어린 엘사는 7부 옷을 입고 있다. 어른 때와는 다르게 부분적으로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지만 트롤을 만난 후 온 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옷 또한 엘사의 억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자매를 이어주는 것은 <겨울왕국>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다. 이들 자매의 관계는 결국 아버지와 ‘한스’ 왕자와 같은 남성들의 영향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 받고 단절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의 사랑으로 자매애를 회복하면서 남성중심 권력 구조에서 해방된다.¹¹⁾

11) 임선진·이지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변화에 따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 : 디즈니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5, 2016, pp.105-111.

3.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의 비교분석

<소녀혁명 우테나>는 여러 편으로 이루어져 TV를 매체로 한 TV 시리즈고 <겨울왕국>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TV시리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던 <소녀혁명 우테나>는 극장판에 비해 개연성 있는 모습으로 페미니즘적 경향이 나타났으나 TV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보았을 때, TV를 매체로 하기에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하여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영 시기 인식의 한계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¹²⁾ 페미니즘적 경향을 보이는 <소녀혁명 우테나>에서도 그러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주인공인 우테나는 작품 전반적으로 객체적인 안시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지만 마지막 편에서 우테나의 혁명은 결국 실패하고 우테나가 사라진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여성억압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한다. 여학생들은 장래 이야기를 낱고 싶다고 말하며 멋진 남자를 붙잡는 것이 여자들의 재능이라고 말한다. 우테나를 추종하던 우테나의 여자 친구도 결국 우테나가 사라진 학교에서 남자를 만나 사귀며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없음과 동시에 끝을 남성 의존적으로 맺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통해 여성들의 한계를 말하는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한다. 그러나 마지막장면에서 안시가 우테나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나가는 주체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은 TV시리즈를 분석하였던 <소녀혁명 우테나>와는 다르게 이데올로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이며 남성중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역할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1937년도에 제작된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백설 공주는 자신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

12) 박수진 「TV시리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변신의 환상성 연구」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응하는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1993년에 개봉한 <알라딘>의 공주 자스민은 능동적인 모습과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알라딘을 만나 끝에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 캐릭터 자체적으로는 많이 능동적이게 되었으나 결국에는 남성에게 의지하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1998년 첫 동양의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물란>에서의 물란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 능동적이고 용감한 캐릭터로 묘사가 되며 단락에는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기까지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남성의 모습을 빌려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끝에서는 남성과의 결합을 기대시키는 결말이 난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항상 큰 성적을 거두었으나 디즈니의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인 <겨울왕국>은 이래적인 성적을 올렸으며 그 성적은 디즈니의 일반적인 공주들의 스토리라인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여성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TV시리즈와 달리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순 없으나 시대변화의 흐름에 피해갈 수 없이 이데올로기의 사상이 애니메이션 안에 나타났다.

미국보다 비교적 늦게 애니메이션 산업이 시작된 일본은 1960년 대 컬러 TV시대가 열리며 실사영화보다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인해 급속한 산업 발전이 되었다. <소녀혁명 우테나>는 당시 1990년대의 세기말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소녀혁명 우테나>는 여성 주체적인 모습과 함께 동성애와 근친 등 사회에 반하는 당시의 파격적인 내용을 같이 담고 있으며 <겨울왕국>은 가족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소녀혁명 우테나>는 창작집단인 비파파스(Be-PaPas)가 기획한 작품이다. 기획, 원작 및 제작을 위해 이쿠하라 쿠니히코가 결성한 5명을 기반으로 하는 그룹이다. 원안 및 감독을 맡고 있는 이쿠하라 쿠니히코와 구성 및 각본담당 에노키도 요우지, 캐릭터 디자인 및 작화 담당인 하세가와 신야, 작품 및 오리지널 아트의 사이트 치호, 기획의 오구로 유이치로 등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성원 중 여성은 작품 및 오리지널 아트를 기획하는 사이트 치호 뿐이었다. <겨울왕국>에서는 남성 감독인 크리스 벅과 디즈니 최초의 여성 감독인 제니퍼 리를 기용했다. 많은 동화를 디즈니 애니메이션화 시켰던 디즈니에서는 오래전부터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애니메이션화 시키고 싶어 했다. 1983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원’을 주제로 한 ‘눈의 여왕’ 첫 시놉시스가 나왔으며 이후 매우 오랜 시간 ‘눈의 여왕’의 애니메이션화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2008년 9월 디즈니-픽사의 존 라세터가 동료인 크리스 벅을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에 감독으로 기용했다. 장문의 삽화적 구성과 암울한 이야기였던 ‘눈의 여왕’의 스토리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여성 감독인 제니퍼 리가 ‘눈의 여왕’ 팀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스토리는 현재 개봉된 <겨울왕국> 스토리의 큰 맥락과 같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그동안 둘 이상의 감독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맡아 진행한 애니메이션은 많지만 지금까지 모두 남성이었고 처음으로 여성에게 감독으로 맡긴 <겨울왕국>은 공주님이 왕자님과 결혼하는 남성에 의존한 여성의 해피엔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여성 감독의 눈과 생각이 필요해 여성 감독을 기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애니메이션학자 폴 웰스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애니메이션은 가부장적인 형식으로 남성 중심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피력했다.¹³⁾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생각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에 담아 남성 중심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데 반해 각각의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여성 제작자들이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왕국>의 제니퍼 리 감독은 제작을 하며 흥미롭게 다가왔던 사실은 사람들이 연약한 여성이 아닌 한 명의 감독으로 대한다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겨울왕국>와 <소녀혁명 우테나>는 2013년과 1997년, 약 16년

13) 홍난지, 「포스트페미니즘 애니메이션 연구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vol.5.No2, 2009, pp.124-142.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작품이 등장했다¹⁴⁾고 말하는 칼럼에서는 <겨울왕국>과 <소녀혁명 우테나>의 비슷한 해석으로 변신하는 존재가 마녀라는 데에 집중했다. <겨울왕국>의 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으로 억압을 당한다. 앞서 엘사의 마법의 힘에 대해 XIONG LISI이 쓴 논문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페미니즘의 변천 연구」에서는 엘사가 가진 마법의 힘을 여성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바에 동의하며 그 힘은 권력층인 남성의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마법의 힘을 가진 엘사는 억압받게 된다. <소녀혁명 우테나>의 히메미야 안시 또한 마녀라고 불리 운다. 안시는 세계의 모든 소녀들을 구해야하는 왕자님을 봉인하여 마녀라고 불리게 되는 데 왕자가 모든 소녀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소녀들을 객체적 상태인 것으로 간주한다. 마녀가 왕자를 봉인한 것으로 소녀들은 이제 왕자가 구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의 자리를 위협한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억압을 받아야 했다.

<겨울왕국>와 <소녀혁명 우테나>는 주체적인 캐릭터가 객체적인 캐릭터를 변화시킬 때에 유대나 사랑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외의 나라간의 특징이나 애니메이션의 제작형태와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지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를 수 있었다.

앞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4) KMDb, <http://www.kmdb.or.kr/index.asp>, 선정우, “[애니초이스] 소녀혁명 우테나 - 시리즈”, 2014년 8월 22일, http://www.kmdb.or.kr/column/ani_recommend_view.asp?tbname=ani_recommend&seq=570.

	소녀혁명 우테나	겨울왕국
나라/방영	일본/1997	미국/2013
형태	TV시리즈	극장판
타겟	성인층	어린이층
주 캐릭터 (성별)	텐쵸 우테나(여성) 히메미야 안시(여성)	안나(여성) 엘사(여성)
변화의 계기	유대	진정한 사랑
객체적 캐릭터를 억압하는 존재	히메미야 안시의 오빠인 아키오 오오토리	아버지
변화인물 주체 →객체	텐쵸 우테나(여성) → 왕자를 봉인한 히메미야 안시(여성)	안나(여성) → 마법의 힘을 가진 엘사(여성)
주체적 캐릭터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남장여자의 모습.	바지보다는 드레스를 입은 어느 여자들과 같은 모습.
객체적 캐릭터의 모습	안경을 쓰고 머리를 틀어 올림. 신부라 불리지만 백색의 드레스가 아닌 붉은 드레스.	머리를 틀어 올림. 여름입에도 긴 옷들로 몸을 감싸고 있음.
제작진의 성별	창작집단 비파파스(Be-PaPas) 이쿠하라 쿠니히코(남성) 사이토 치호(여성) 에노키도 요우지(남성) 하세가와 신야(남성) 오구로 요이치로(남성)	크리스 벅 감독(남성) 제니퍼 리 감독(여성)
외부배경	여자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애니메이션들의 성공과 여자어린이 타겟의 애니메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즈니의 공주들도 조금씩 주체적으로 변함에 겨울왕국에서는 주인공이 왕자와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닌 자매애를 보여줌으로써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역할에 집중했다.

표 1.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 비교

Ⅲ. 결론

본 논문은 페미니즘적 경향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일본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미국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일본애니메이션의 마법소녀물 장르인 <소녀혁명 우테나>나 미국애니메이션의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초국적 문화산업의 첨병으로 거두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온전하게 페미니즘 애니메이션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두 애니메이션 속에 나타나는 남녀평등을 외치며 일어난 페미니즘의 노력을 통해 사회는 변해가고 있었으며, 변해가는 사회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거대 산업의 모습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은 남녀평등을 위한 변화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동들의 교육용으로, 성인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상미디어 중 하나인 애니메이션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녀혁명 우테나>에서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우테나가 또 다른 주인공으로 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안시를 주체적으로 변신시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은 <겨울왕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데 안나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힘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억압당하던 엘사의 해방을 보여주었다. 안시나 엘사는 가부장제의 억압에 의해 객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테나와 안나와 같은 주체적 행위자의 모습에 계기를 받아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각각의 애니메이션은 1997년과 2013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지만 마녀라 불리는 수동적 여성 캐릭터가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었고 또 다른 여성 캐릭터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소통의 주체가 되는 애니메이션 영상미디어에는 여성을 각각 주체로써 자아와 욕망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포스트페미니즘적 경향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수동적 캐릭터에서 능동적 캐릭터로 진화하였으며, 1997년도에

방영한 <소녀혁명 우테나>의 우테나는 마치 남장여자와 같은 모습으로써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겨울왕국>에서는 남장이 아닌 여성의 모습으로써 자신의 욕망에 다가갔다. 또한 이러한 여성의 시대적 변화를 캐릭터의 조형 요소에 반영하여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¹⁵⁾으며 예전에는 남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체적 모습을 이해시켰으나 현재에는 여자다운 모습으로도 주체적 모습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는 변했음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사회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던 포스트페미니즘 이전의 페미니즘에서 현재는 개인의 주체성을 바라보며 여성 개인 간의 ‘차이’ 까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발견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작 될 애니메이션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다음번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선남 · 정현옥, 『섹스 젠더 미디어』, 범우사, 1999.
- 로즈마리 퍼트남 통 지음, 역자 이소영,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2000.
- 앤 브룩스 지음, 옮긴이 김명혜,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2003.
- 윌트디즈니 픽처스, 『THE ART OF 겨울왕국』, 대원씨아이, 2013.
- 박수진, “TV시리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변신의 환상성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5) 임선진 · 이지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변화에 따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 : 디즈니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5, 2016, pp.105-111.

- 김영하, “9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에 내재된 폭력성과 여성관에 대한 고찰 -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임선진 · 이지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변화에 따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 -디즈니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 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5(2016), pp.105-111.
- 오동일 · 김동현,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형과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5 No.2(2009), pp.32-48.
- 최혜경,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자매애」, 『만화애니메이션연구(Cartoon & Animation Studies)』, Vol.44-No.44(2016), pp.57-84.
- 홍난지, 「포스트페미니즘 애니메이션 연구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5 No.2(2009), pp.124-142.
- 네이버사전 검색어 :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미디어 2016년 6월 23일
- 위키백과 검색어 : 소녀혁명 우테나, 겨울왕국 2016년 6월 23일
- 소녀혁명 우테나 <http://www.siautena.pe.kr/>
- 성의 우화로서의 우테나 <http://yamoo.egloos.com/808431>
- 소녀혁명 우테나 론, <http://psyalice.ivyro.net/alice/dinner-utena-main.htm>

ABSTRACT

An Analysis of Feminism Trend in Animation -Focused on American and Japanese animation-

Seo, Tae-Hee · Yoon, Kap-Yong

Modern society which human rights and woman's right have been risen is asking for equality treatment of women and men in all sectors of society under sexual equality principle. People say that hidden beneath sexual equality's surface is feminism. Feminism had arisen in the directions that rights and opportunities of women and men are equal. But now, feminism has aimed at woman's right acquisition and realization because men have taken the lead in social activit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istorically.

This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feminism through animation which is image media contents. As everyone knows, media is the glass reflecting the times by reflecting the ideology of the times. In that sense, studying the feministic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animation which is the representative genre in image media is the meaningful research in understanding the trends of the times.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nalyzed the <Revolutionary Girl Utena> and <Frozen> which clearly showed feministic trend. The two animations have the character changes which the objectified women as witch meets the subjective women and the women do a self-directed choice and behavior. Use this to find out the trend of subjective and self-actualizing of Postfeminism in our modern society. Also based on this, this study could predict the changing of feminism arising in the future.

This study's limit is that this study is hard to find animation research result related feminism. Symposium related to the feminism animation was held in Korea and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internet. This is the next study want even deepening.

Key Word : Feminism, Frozen, Revolutionary Girl Utena

서태희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일반대학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전공 석사과정
(28480)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종로 120번길 7
Tel : 041-834-1515
seo15@naver.com

윤갑용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28503)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번길
Tel : 043-229-8678
redfish9@cju.ac.kr

논문투고일 : 2016.11.01.
심사종료일 : 2016.12.01.
게재확정일 : 2016.12.01.